



세계 유수의 문화기관인 M+와 ZKM, ACC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전 '봄의 선언'이 ACC에서 4월부터 내년 2월 까지 열린다. 이끼바위쿠르르 작 '누가 마을을 잊었는가'.

세계 우수 문화기관과 함께 '봄의 선언'

ACC 개관 10주년 내년 2월까지
홍콩 M+·독일 ZKM과 국제협력
광주 민주평화·기후 위기 주제로
국내의 작가 16명 작품 27점 전시

홍콩 M+ (이하 M+)는 현대 시각문화 뮤지엄으로 디자인, 건축 등 비주얼 관련 문화를 다채롭게 다루는 문화기관이다. 서구 문화권에 위치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근현대 시각문화 박물관 가운데 하나다.

독일 ZKM 카를스루에 예술미디어센터(이하 ZKM)는 세계적인 매체 예술을 표방하고 견인하는 기관이다. 디지털 시대 열린 개념을 제시하고 예술과 기술의 담론을 전파하는 플랫폼이다.

세계 유수의 문화기관인 M+와 ZKM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전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김상욱, ACC)에서 열려 화제다.

특히 이번 국제협력 전시(4월~내년 2월, 북향전시1관)는 ACC 10주년을 맞아 광주의 민주·평화 정신을 토대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봄의 선언'이라는 주제로 구현되는 전시는 '봄', '선언'이라는 키워드를 모티브로 국내외의 16명 작가 27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김상욱 전당장은 "M+와 ZKM이 함께하는 이번 국제협력전은 ACC가 개관 10주년을 맞아 지난해부터 준비한 프로그램"이라며 "오늘날 우리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세계적인 문화기관, 예술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존의 방향과 방법 등을 예술로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ACC는 특별전 '봄의 선언'과 관련 지난해 10월 국제 심포지엄을 연 바 있다. 당시 홍콩 수환야 래플 M+ 뮤지엄 관장, 독일 엘리스테어 허드슨 ZKM 미디어아트센터 관장 등이 전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자본세'라는 명칭을 처음 명명한 세계생태론 학자인 제이슨 W. 무어는 당시 심포지엄에서 "힘의 논리는 더 이상 안 되며 자연을 정복하겠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까지의 대학과 학계의 지식은 인류를 구하지 못한다. 새로운 상상력을 펼쳐야 하며 무엇보다 자본주의가 말하는 인류가 망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임리원 학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해 애썼던 광주와 아시아의 정신이 '봄'이라는 키워드에 투영됐다"며 "자본세"를 모티브로 인간만이 아닌 비인간까지도 아우르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큐레이터의 안내를 따라 관람한 작품들은 독특한 상

상력과 철학으로 저마다 울림을 줬다.

앤 덕희 조던의 '깊은 곳으로'는 다중감각 설치 작품이다. 수중 티널 형상으로 구현된 작품은 바다 깊은 곳으로 관람객을 초대해 수중생물의 생태계를 보여준다. 거울 벽면과 대형 프로젝션으로 구성된 몰입형 환경은 심해의 발광 생물, 유체 플라크톤을 비취춤으로써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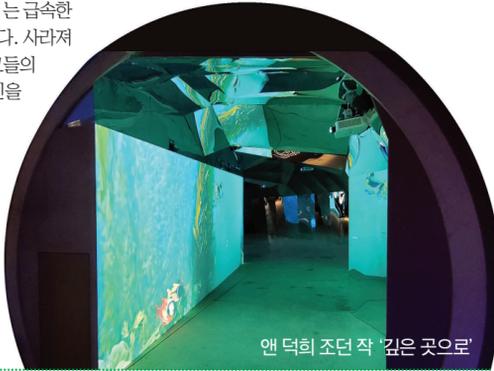
이끼바위쿠르르의 '누가 마을을 잊었는가'는 급속한 도시화와 세계화로 쇠퇴하는 마을을 조명한다. 사라져가는 마을에 대한 성찰이자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이야기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동아시아의 사라져가는 마을에서 수집한 오브제와 영상, 재현된 유물로 구성돼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

서부 영화를 배경으로 회전초를 조명한 최찬숙 작가의 '더 탐벌'은 뿌리없는 존재로서의 생태 감각을 표현했다. 작가는 아리조나 사막을 탐사하며 회전초를 추적했지만 잡지 못했다. 대신 이를 기후 데이터, 생태 정보 등을 매개로 영

상을 제작해 예술적 사유를 관객들에게 제공한다.

메소아메리카의 비의 신 틀라로크를 모티브로 한 '틀라로크-비의 박쥐 신'은 이색적이다. 페르난도 팔마 로드리게스의 작품으로, 농업과 창조 신 나와족의 신 틀라로크를 의인화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앤 덕희 조던 작 '깊은 곳으로'

독일 엘리스테어 허드슨 ZKM 관장

"ACC와 즐겁고 진정성있게 작업"



"오늘날 세계 현실 속에서 예술가와 예술기관이 어떻게 세계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내는 데 초점을 뒀다."

3일 ACC에서 열린 특별전 '봄의 선언'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독일 엘리스테어 허드슨

ZKM 관장은 "예술가와 예술기관은 개별적으로 세계의 변화를 이끌기는 역부족이다"며 "자본세의 폐해를 극복하고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특별전을 위해 지난 1년간 ACC와 즐겁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협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드슨 관장은 "오늘 새로운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구라는 공간을 공유하는 다양한 존재들이 협력과 공감이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다층적인 목소리, 이미지, 사운드의 합성이 창출하는 감성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홍콩 실케 슈미클 M+ 뮤지엄 큐레이터

"공동의 협업은 예술가들에 큰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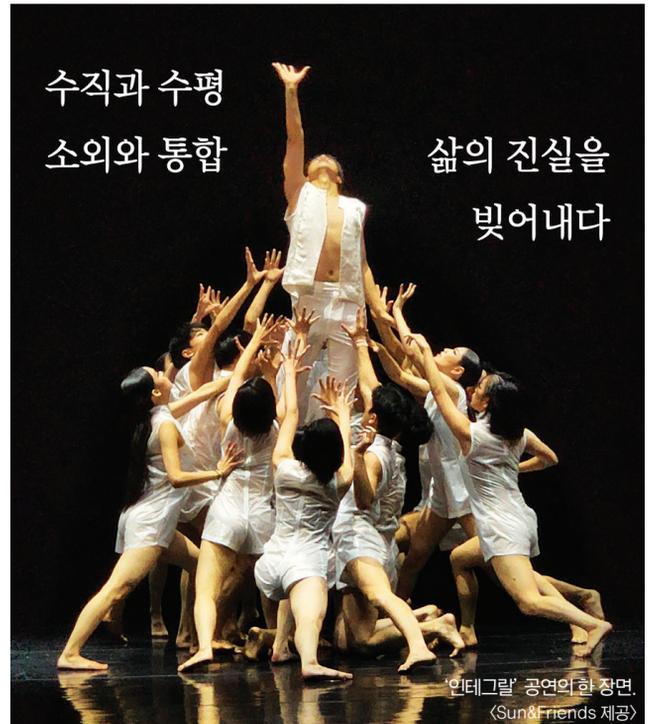
"무엇보다 의미있는 전시에 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오늘의 작업은 홍콩에서 했던 작업들의 연장선과 유사하며 ACC와 M+는 지향하는 방향이 거의 일치한다."

홍콩 실케 슈미클 M+ 뮤지엄 큐레이터는 M+는 아시아에 뿌리를 둔 글로벌 시각 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M+는 다학제적 연구를 비롯해 시각, 건축 등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형태의 연구와 창작작을 펼치고 있다.

그는 "이번 특별전과 ACC와 체결한 MOU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무엇보다 공동커미션은 예술가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정신과 비판적 정신의 조화"라며 "세계의 자본주의적 체제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새로운 미래상을 예술적 실천으로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수직과 수평 소외와 통합 삶의 진실을 빚어내다

'인테그랄' 공연의 한 장면. (Sun&Friends 제공)

댄스컴퍼니 Sun&Friends '인테그랄' ...30일 광양문예회관

인간관계의 복잡한 결이 무대 위에서 춤이 된다. 수직과 수평으로 교차하는 레일 위에서 충돌과 화합, 소외와 통합의 순간들이 움직임으로 빚어지며 삶의 진실을 드러낸다. 창작무용 '인테그랄'이 광양 무대에 오른다.

댄스컴퍼니 Sun&Friends가 오는 30일 오후 7시 광양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창작무용작 '인테그랄(Integral)'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광주문화재단의 '2025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우수공연 진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우수작품을 발굴하고 타 지역 무대 진출을 확대해 공연예술 활성화와 교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테그랄'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철학적이면서도 감성적으로 풀어낸 창작 무용 작품이다. 관계 속에서 마주하는 충돌과 소외, 결속과 화합을 시각적 이미지와 몸짓으로 드러내며 인간관계는 '수직과 수평의 레일'이라는 시각적 상징으로 표현된다. 이를 통해 관객은 일상 속 관계와 삶의 진실을 성찰하게 된다. 안무가 선유라의 예술적 세계가 고스란히 담긴 무대로 동작

하나하나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작품은 총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첫 장 '실연'은 만남과 이별, 어긋남의 순간을 담았고, 두 번째 '수직 혹은 수평'은 관계의 조건과 구조적 갈등을 표현한다. 이어지는 세 번째 '필수불가결한...'은 관계 유지의 불가피한 인력과 끌림을, 마지막 '인테그랄'은 관계의 본질을 재발견하며 새로운 통합으로 나아간다.

작품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아 2023년 제31회 전국무용제에서 대통령상-안무상-연기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Sun&Friends는 2019년 창단 이후 광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예술을 연결하는 다양한 작업을 이어왔다. '예술의 일상화, 일상의 예술화'를 모토로 공연과 예술교육, 창작 활동을 병행하며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선유라 대표는 "이번 공연은 인간관계라는 보편적 주제를 춤으로 풀어내는 자리다. 관객들이 공연 속에서 자기 이야기를 발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석 무료.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생애주기, 그 시간의 선·율'

창작곡·미술·연극 결합...6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아트스페이스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여정 속에 흐르는 선율과 이야기가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창작곡과 미술, 그리고 연극을 결합한 공연 '생애주기, 그 시간의 선·율'이 오는 6일 오후 7시 30분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관객을 맞이한다.

이번 작품은 영·유아기부터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섯 단계의 생애주기를 담았다. 각 시기를 표현하는 창작 음악과 미술 작품, 그리고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를 결합해 하나의 예술적 서사를 완성한다. 단순한 극적 재현을 넘어 삶의 굴곡과 감정을 다층적으로 조명하는 시도다.

무대의 중심에는 '엄마'와 '딸'의 관계가 놓인다. 닳았음을 부정하다가 결국 닳아 있음을 깨닫는 과정을 통해 세대를 잇는 삶의 순환성을 관객에게 전한다. 관

객은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자기 삶의 한 장면을 떠올리고, 마치 심리극에 참여하듯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이번 공연은 음악·미술·연극이 동등하게 주인공이 되는 무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장면마다 직접 작곡된 음악이 흐르고 그 순간을 형상화한 미술이 시각적으로 더해진다. 여기에 배우들의 감정 연기가 입체적으로 어우러지면서 기존의 장르 구분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공연예술을 제시한다.

작품을 이끌고 있는 이는 신진 극작가이자 작곡가, 연출가인 임수림(26)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혼자 극작과 작곡을 동시에 해내며 무대를 꾸민 그는 "누구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서로 닳아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 있다. 이번 공연은 그런 순간을 음악과 미술, 연극으로 풀어낸 여정이다. 관객들이 자신의 삶의



'생애주기, 그 시간의 선·율' 공연 연습 장면. (임수림 제공)

한 페이지를 발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석 무료, 네이버폼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다시한번

문체부·영화진흥위, 8일 188만여 장 추가 배포

지난 여름 관객들을 영화관으로 끌어들이던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이 가을에도 이어진다. 고물가로 침체된 극장가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188만여 장의 할인권을 추가 배포한다.

'2025년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450만 장이 풀렸으나 9월 2일까지 사용되지 않은 잔여분을 재배포하는 것이다.

할인권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 등 멀티플렉스 극장의 누리집과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광주극장, 광주 독립영화관 등 지역 독립-예술영화관도 참여해 관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용 편의를 위해 사용 방식도 개선했

다. 할인권을 따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각 영화관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1인당 2매가 자동 지급되며, 결제 단계에서 선택순으로 사용된다. 다만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고 쿠폰함에 남아 있던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 소멸된다.

문체부는 온라인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관객을 위해 종합 안내 창구도 운영한다.

문체부에 따르면 1차 배포 기간(7월 25일~9월 2일) 동안 극장을 찾은 관객은 하루 평균 43만5000명으로, 올해 상반기 일평균 대비 약 1.8배 늘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할인권이 국민의 영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산업 회복에도 불씨가 되고 있다"며 "극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